

# 재가교역자 양성과 보수교육에 대하여

백인혁 위원: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

1. 재가교역자란?
2. 재가교역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3. 교과 과목의 편성은?
4. 교육시간은?
5. 교육기간
6. 교육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7. 이러한 교육의 시행에 앞선 일은?

교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대답을 가지지 못한 채 교화 선상에 서서 대종사님과 역대 종법사님께 미안하고 교도님들에게도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교법으로 전 생령을 구원하고 이 세계를 고치기 위함이란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화·교육·자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교헌 총강에서 밝혀 주고 있으니 북극성은 알고 출발함이라 모든 교무들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당에 부임할 수 있다.

그래도 교화의 현장에서 교화란 무엇인가? 교화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놓고 살 수는 없다. 교화의 뒷받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분명한 것은 교육과 자선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화 시스템이 교육과 자선이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특히 교육과 교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도 교화 속에 교육은 하나의 기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이 교화의 활성화와 교법의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인은 교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자선이 교당이나 지구나 교구에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잘 돌아야 교화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하에 대종사님의 교법실현에 선봉장이 될 재가교역자 교육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재가교역자란?

원불교 교헌 第9條 教役者란에서 본교는 出家·在家的 男女 教役者를 養成하여 敎化와 事業을 擔當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출가교역자는 6년간의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화와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나 재가교역자는 단지 교무의 제청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무가 교도 중에서 적당히 선별 제청하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임명된다. 따로 마련한 자격요건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재가교역자의 정의에서 살펴보면 “재가교도로서 원무 및 임원으로 본교 교역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재가교역자의 종류는 원무,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의 별이 있다. 출가교역자도 6년간의 기본교육 이후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이행능력 교육도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체계적인 출가교역자 업무능력 이행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화현장에서 재가교역자는 출가교역자의 손발임과 동시에 그곳 그곳의 주인으로 한번 그 교당 재가교역자가 되면 그 교역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하지 않는 한 출가교역자보다는 훨씬 더 오래 그 교당에서 교역에 종사한다. 그런 재가교역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알려 주지 못한다.

## 2. 재가교역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재가교역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재가교역자에게 우리가 교육시켜야 할 요체가 되는 것이다. 재가교역자가 교당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답중 하나 재가교역자는 대종사님 밝혀 주신 교법을 정확히 실현해야 한다. 둘째는 대종사님 밝혀 주신 교법을 전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교육은 재가교역자에게 우리교리의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과 분야별로 나누어진 역할에 따라 역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재가교역자 교육과목 편성도 우리의 교법을 가르치는 기본교육 과목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교육 과목이 필요하다. 특히 역할교육은 우리교단에서 시킨 전례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교육과목을 정하는데 고심해야 한다.

## 3. 교과 과목의 편성은?

재가교역자 기본교육과 역할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본교육과목은 ①정전②대종경 ③교사 ④예전 ⑤성가 ⑥교헌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역할교육 과목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① 교도회장단은 조직 관리나 행정관리 등이 교육되어야 하고,

② 주무는 교당의 역할, 교당관리 등이 교육되어야 하고,

③ 단장, 중앙은 단원간 인간관계법, 단원의 삼대력 향상 지도법, 가정 관리법, 상

담 등이 교육되어야 하고,

④ 순교는 대인관계 화법, 핵심교법 전달방법 등이 교육되어야 한다.

아직 출가교역자도 자기 역할에 맞는 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재가교역자는 당장 필요하니 교육시키다 보면 교육의 주체자도, 피교육자도 교육이 되어 역량 축적이 되어질 것으로 본다.

#### 4. 교육시간은?

재가교역자는 생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대중사님 당대와는 달리 농한기가 없는 상황이니 어느 기간을 정해 교육시킬 수가 없으니 우선은 월 1일 교육이나 주 1일 교육, 또는 전반기 후반기 집중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① 월 1일 교육은 매월 1일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1년에 12일 교육이 되어진다. 교육이 장기화되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피교육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장점도 있다.

② 주 1일 교육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추세이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 1일 교육은 연 54일 교육으로 단기간에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전후반기 교육은 야간시간을 이용 집중적으로 1개월씩 교육함인데 직장에 근무하는 교도가 많은 곳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 5. 교육기간

재가교역자 교육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것은 교육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①주1일 교육을 시켰을 경우 1년, ②월1회를 교육시켰을 경우 3년, ③분기별 교육을 시켰을 경우 1년 교육을 시켜서 재가교역자로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 6. 교육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재가교역자를 현장에 가장 맞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다.

① 가장 좋은 방법은 교당에서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교당을 운영하는 우리 실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

② 현재 교당의 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다면 차선택으로 지구별로 하는 것인데 지구에도 교수진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려운 면은 교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③ 그러나 지금은 거교적으로 교도교육을 구체적 실행을 해보지 않은 상황이니 교구에서 교육과정과 교수진을 구성하여 지구를 순회하며 교육시켜 주는 방법도 있다.

## 7. 이러한 교육의 시행에 앞선 일은?

- 1) 교단적 의지가 중요하다.
  - 2) 교화 방향의 선회가 중요하다 - 더디지만 안정적으로.
  - 3) 훈련과 교육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 군인교육과 훈련에 대해 생각해보면 접근이 쉬워짐.